**교제와 나눔**

**ㆍ성령강림주일:** 오늘 성령강림주일에 찬양으로 함께 한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의 부흥과 성장 성숙을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배당 예배로의 전환:** 드디어, 6월 14일 주일부터 Mutterhauskirche에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15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방역수칙 및 운영 방식 등 다음 주일에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ㆍ말씀편지:**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생일축하:** 손혜숙, 이경준, 정원기

**\*\* 함께 기도합시다 \*\***

1) 예배당 예배로 잘 전환되게 하소서.

2) 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 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4)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 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합3:1-19 월/고전1:1-9 화/고전1:10-17 수/고전1:18-31

목/고전2:1-16 금/고전3:1-15 토/고전3:16-4:5 일/고전4:6-2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4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5월 31일** | **6월 7일** | **6월 14일** | **6월 21일** |
| **예배기도** | 김종권 | 정수연 | 한명일 | 유근임 |
| **말씀일기** | 이영환 전도사 | 전소현 | 송수미 | 정기승 |
| **안내위원** |  | |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 |
| **애찬봉사** |  |  |  |  |

**37-22호 2020년 5월 31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성 령 강 림 주 일 예 배**

오

인도: 김요한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요한4:23-24 | | 찬송/Gemeindelied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1) | | 찬송/Gemeindelied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 | 기도/Gebet 김종권 집사  말씀일기/Bibeltagebuch 이영환 전도사  찬양/Chor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청년부  ‘희망의 기도’ 이영환 전도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갈라디아서 5:22-23** | | 설교/Predigt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김요한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  찬송/Gemeindelied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봉헌/Kollekte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손민해, 구가희, 전하라  교제/bekantmachung  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축복/Segen 손교훈 목사  **\*\*교회 구좌**  Baek, Han-Jin Kim  Bank: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  IBAN: DE29 3007 0024 0598 1931 00  BIC: DEUTDEDBDUE | |  | |  |  |

**<설교>**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갈5:22-23)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많이 불편하시지요. 하시는 일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일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각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루고자 했던 계획들이 미루어지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에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2만km가 넘는 거리를 다녔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비록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의 글은 성경에 포함되었고 그 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성령님에게 인도를 받았기에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능력을 많은 이들이 부러워합니다. 사역자인 저도 매우 부럽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알면 좋을 텐데, 그러면 지혜롭게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거야. 나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물질의 복을 받고 성공을 하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러한 축복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만 주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4장과 16장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 소개를 하십니다.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하고 소멸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어느 한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남습니다. 익숙했던 말씀을 새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감정과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서 회개시를 쓴 사람들처럼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의 죄와 악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며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움을 멈추기도 하고, 분노를 다스리기도 하고, 끊임없는 욕심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소망이 내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가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복음과 자유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편지입니다.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따라 행하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라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하며,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성령의 열매가 3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더 이상 불안이나 갈등이 아닌 화평을 누립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참을 수 있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내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다른 말로 신실할 수 있으며 내가 하는 일에도 성실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온유하며 끝없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일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가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많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과일나무를 심은 후,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열매를 맺어가시지만, 그 일은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 하는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기다린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조금씩 맺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를 내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온유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불편해했었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왔더니 나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어느덧 내가 평안히 지낼만한 나의 삶의 영역, 관계가 생긴 것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말씀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되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안에 맺힌 열매에 행복하며 감사하며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이지요. 바라기는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러워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신앙과 성품을 가졌을까? 우리는 그분들의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저분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몸부림쳤기에 얻은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보내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젊음의 시기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멀리멀리 가기 전에, 그래서 되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들기 전에, 성령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에 젊을 때 힘겹게 느껴집니다. 청년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요. 청년이지만, 어른들보다 사회적인 힘도 없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염려, 이미 가진 자들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나의 맘과 삶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겪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등에 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 맺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도 저마다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왔기에,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청년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다른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를 향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점점 달라져 가는 나의 모습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드리는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 친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싶고, 그래야지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어떻게 상황이 변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청년들을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복이 있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